

* 글 | 김광진
 빠른 것의 의의와 느린 것의 의의
 이 책을 읽는 데
 休

새로운 이 데를 보이기



이 글을 쓴 김광진은 _____ 부산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 경실련 보건복지 자문의원, 건강연대 의료개혁위원회 정책위원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3년 전 과테말라로 이민을 갔다. 박철 목사의 사이트에 들렀다가 느낌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현재 그가 머무르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현실과 전통적인 삶을 고수하는 인디헤나들의 삶에 주목하며 느낌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다. 인터넷 매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과테말라로 틈새이민 간다》가 있다.

‘큰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다.’ 얼마 전에 읽은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꼭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이 웅변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회에 빠르게 대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빠른 것이 이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모든 것이 바빠집니다. 원래 ‘빨리 빨리’로 표현되는 성질 급한 민족이 바로 우리들이긴 하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빠름의 속도가 오늘 같지는 않았습니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빨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빠르지 않은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빠름은 미처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들의 주변 어디에든 자리 잡고 앉아서 우리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란 말 앞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전지구적 자유무역시대에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라는 이름의 원칙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원칙은 국가의 장벽도 쉽게 뛰어넘고, 때로는 국가의 주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극적인 예가 바로 농산물입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우리의 농민들은 결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국회, 정부청사, 한강고수부지, 그리



고 수많은 길거리에서 수없는 집회를 가졌고 헤아릴 수 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 전 멕시코 칸쿤의 WTO 회의장 부근에선 농민이 경해 씨가 세계 언론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농촌의 민심이 이러다보니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은 죽을 각오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막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차기에 당선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절대로 농산물만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호언장담을 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빠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걸림돌이 사라진 현재에 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촌의 예에서 본 것과 같이 국가도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와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본의 힘은 그만큼 막강합니다. 빠름을 주도하는 원리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산업혁명시기에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질병과 위험을 감수하며 자원을 가져온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피와 땀의 대가를, 한발 먼저 산업화를 이룬 영국이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과 값싸게 바꾸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착취한 노동의 산물은 노동의 부가가 교환에 의해 엉뚱하게 영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

가지지 않는 나라'는 스페인에서 한발 빨리 산업화를 이룬 영국으로 그 이름의 주인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빠름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들은 빠름을 독촉하고 빠름을 정당화하고 빠르지 않는 것을 죄악시키는 분위기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촉' '정당화' '죄악시'라는 단어들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깊이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몰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삶의 방식은, 보다 빠른 삶을 재촉하는 일종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입니다.

빠름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면 그것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느림' 일. 것입니다. "느림이 이데올로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림은 분명히 신자유주의라는 빠름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입니다. 지난 시절 전 지구적 이념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느림'이라는 단어에 공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빠름이 재촉하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진보였던 것이 오늘은 보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진보는 사회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보다 나은 생산성을 이룩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시대적 사고에 젖어 있던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것일 뿐, '인간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 진보라는 것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노력해야 할 새로운 대항 이데올로기는 '느림'이라는. 이름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향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가야 할 시기에 느림을 찾는다고?"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느림은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경제적 성과만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빠름이 직장을 떠난 우리들의 동료를 돌아오게 하지도, 우리들의 하루를 기쁨에 젖은 것으로 만들어 주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느림이란 것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빠름을 따라가기에 지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들이 조금 더 소비하고, 조금 더 부유하고, 조금 더 가지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어느 영화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했듯이, 행복은 결코 소득의 수준대로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소득은 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내 밥그릇을 빼앗는 적으로 여기며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으로 인식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눈꺼풀에 붙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떼어버리고서 말입니다. **☞**